

상속·지방주택 소유 2주택자도 1주택 종부세

이사 등 주택취득 2년내 옛집 팔면 1주택 종부세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누구나 200만 한도

정부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을 유지해 주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도 이날 말까지 확정하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착수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종부세 부과 주택 수에 제외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

와 동일한 종부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해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 내 살던 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혜택을 준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주택도 5년간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수도권·특별시(읍·면 제외)나 광역시(군 제외)와 지역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1세대 2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이는 올해 3분기 종합부동산세법

을 개정 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기존 보유한 1주택 외에 놓여진 지역에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말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음에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종료돼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면 연간 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현행 연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13만300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시가 현실화와 목표 달성 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 급등 시 탄력적 조정 장치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달 연구용역 착수 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증자리론에는 보증금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 현재는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15·20·30년 만기 이용 시에만 보증금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를 40년 만기에도 적용해 소득이 적은 청년·신혼부부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보증금 상환방식은 대출 초기 상환 원금이 적고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져 매월 원리금이 증가하는 방식을 뜻한다.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주택 요건은 기존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초기보증금 환급 절차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금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내 해지 시 환급이 되는 구조다. /뉴시스

대한조선 첫 건조 '서틀탱커' 명명식 그리스 해운선사 차코스사로부터 수주



대한조선이 창립 이래 첫 수주 받은 서틀탱커를 성공적으로 건조하고 21일 명명식을 거행했다. 이날 명명식에서는 선주사 대표 Mr. Nikolas P. Tsakos와 DNV 선급 등과 함께 전남도 박창환 정무부지사 및 명천관해남군수 등이 참석했다.

포르토(PORTO)로 명명된 선박은 대한조선이 지난 2020년 7월 그리스 해운선사 차코스(TSAKOS)사(社)로부터 수주한 15만4500DWT 서틀탱커로, 길이 276.4m, 높이 23.7m, 폭 48m 규모다.

서틀탱커는 해양플랜트에서 생산한 원유를 해상에서 선적해 육상 저장기까지 실어 나르는 특수목적 선박이다.

원유 저장 공간 외에도 선수부에 위치한 액체화물 선적 장치와 선적하는 동안 조류나 파도가 있는 환경

에서도 일정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자동위치유지장치 등의 특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대한조선은 첫 서틀탱커의 건조를 맡겨준 차코스 선주와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1년간 TFT를 추진하는 등 전 임직원들이 단결해 프로젝트 수행했다.

탱커선(석유제품운반선) 및 원유운반선을 주력으로 건조한 대한조선에는 처음 수주한 고부가가치 선박을 납기에 맞춰 성공적으로 건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선박이다.

정대성 대표이사는 축하를 통해 "앞으로 건조할 LNG 이중연료 추진 선박, 컨테이너선도 성공적으로 건조해 대한조선의 경쟁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형안 기자

직장인 점심값 평균 8537원 2년 전보다 12.8% 올랐다

기업들이 지출하는 임직원 1인당 점심 식대가 8537원으로 조사됐다.

푸드테크 기업 식신이 21일 자사 모바일 식권 '식신e식권' 서비스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직장인 평균 점심값은 지난 2020년 연평균 7567원 대비 1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신(식권)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주변 식당 및 편의점, 구내식당 등에서 식대를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식권이다. 2015년 서비스 오픈 이후 전국 5만 개에 육박하는 가맹 식당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최근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점심값이 오르는 상황이다.



포켓빵 이어 '메이플빵' 품질 대란 시작된 1일부터 닷새째 하루 최대 발주량이 매일 소진되고 있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시내 GS25 편의점에 진열돼 있는 메이플빵 모습.

편의점 GS25가 넥슨과 손잡고 출시한 '메이플스토리 빵'이 품질 대란을 빚으며 캐릭터빵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GS25에 따르면 메이플빵은 판매가 시작된 1일부터 닷새째 하루 최대 발주량이 매일 소진되고 있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시내 GS25 편의점에 진열돼 있는 메이플빵 모습. /뉴시스

편의점 GS25가 넥슨과 손잡고 출시한 '메이플스토리 빵'이 품질 대란을 빚으며 캐릭터빵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GS25에 따르면 메이플빵은 판매가 시작된 1일부터 닷새째 하루 최대 발주량이 매일 소진되고 있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시내 GS25 편의점에 진열돼 있는 메이플빵 모습. /뉴시스

본격 장마에 '배추·무 등 채소' 가격 ↑ aT 광주전남지역본부, 오이·감자·간마늘 가격 급등

본격적인 장마로 접어들면서 잦은 우천으로 인한 생육부진과 출하작업 부진으로 채소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발행한 농산물 일일장보기 가격정보 '얼마요 2212호'에 따르면, 전년 대비 고구마, 배, 쌀 등은 가격이 크게 내린 반면 오이, 감자, 간마늘은 가격이 급등했다.

지난 20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 도매가격 기준 고구마는 1kg에 4800원, 배(10개 들이)는 4만17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가격이 31%(-2200원), 21%(-1만1300원) 하락했다.

쌀(20kg)도 5만1600원으로 전년보다 11%(-6700원) 가격이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오이(취청 10개)는 전년(7000원)보다 32% 오른 9250원에

거래됐고, 감자(100g)와 간마늘(1kg)도 전년보다 각각 26%, 25% 오른 360원, 1만1300원에 판매됐다.

붉은고추와 수박은 전년보다 가격이 올랐지만, 2주전 보다는 하락했다.

붉은고추(100g) 가격은 10200원으로 전년(10000원)보다 2% 상승했고, 수박(1개) 가격은 2만4500원으로 전년(2만원)보다 22% 상승했지만 2주전 가격보다는 각각 15%(180원), 2%(500원) 하락했다.

aT 관계자는 향후 2주간 가격 전망에 대해 "금주부터 장마가 예보되고 있어 잦은 우천으로 인한 생육여건 악화와 출하작업 부진 등으로 산지 출하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배추, 무 등 채소류 대부분이 오름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6월 남도 전통주, 곡성 시향가 '말이아막걸리아'



전남도는 곡성의 친환경 쌀과 유기농 토란 가루를 사용해 만든 캔 막걸리, 곡성 시향가의 '말이아막걸리아'를 6월 대표 남도 전통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말이아막걸리아'는 특허기술을 획득한 시향가만의 황금비율로 배합하고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산미와 산뜻한 목넘김, 깔끔한 마무리를 자랑한다.

토란은 칼륨이 많아 나트륨을 배출시켜 고혈압에 효과적이고,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한다. 또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돼 숙면에 도움을 준다.

온라인쇼핑몰과 곡성의 매장에서 200ml 작은 캔 막걸리 4개 기준 1만 원, 3ℓ 대용량 단품 2만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반도체·석유화학 호조' 광주·전남 5월 수출 45.5% ↑

72억 달러 수출...무역수지 15억7000만 달러 흑자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올해 5월 들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지역본부가 21일 제공한 '5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5% 증가한 72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석유화학제품, 선박 등의 수출 호조로 광주(24.0%)와 전남(53.2%) 수출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광주는 반도체 호조세 지속과 자동차

차, 타이어 등 고부제품 수요 증가로 주요 품목 수출이 30% 이상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남은 전 세계적인 고유가 흐름 속에 높은 정제마진과 가동률이 유지되면서 석유제품,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데다 선박 수출 통관이 이뤄지면서 전체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수출 증가세는 단가 상승의 영향도 있지만 수출 물량 자체 증가가 직접 원인으로 파악됐다.

광주·전남 무역수지는 15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5월 전국 무역수지가 17억10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광주·전남은 흑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늘어날수록 무역수지 감소로 이어지는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8.3% 증가한 56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입은 광주는 21.6%, 전남은 67.0% 증가세를 보였다. /권형안 기자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건설사들 '기대반 우려반'

원가 부담 개선 vs 고분양가로 청약 흥행 저조 우려

정부가 아파트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한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개선하면서 건설사들이 신규 물량 공급 계획과 청약 전략 등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은 분양가에 곧바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되면서 제도 개선 이후로 분양 일정을 미룬 건설사들은 '새판짜기'에 고심하고 있다.

양가 상한제 개선안은 건설 자재비 상승분과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20일 조합원이주비 등 필수 비용과 건설 자재비 인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개선했다.

정부는 이주비와 대출 이자, 영업손실 보상비와 명도 소송비, 총회 개

최 등 필수 소요 경비도 분양가 산정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분양가 심사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할 때 미콘·철근 외에 최근 현장에서 많이 쓰는 장호 유리, 강화 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의 가격을 반영하기로 했다. 매년 두 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해 고시하는 것과 별개로, 레미콘과 철근 가격이 합쳐서 15% 이상 오르면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택지비를 산정할 때도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심사했던 것을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감정평가사가 의견을 반영하는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이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철근·레미콘 등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할 때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축비에 자재값 인상이 반영되면 원가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고분양가로 인한 분양 실패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약 불패'로 여겨지던 서울에서 최분양 무순위 청약(줍줍)이 나오거나 당첨 가격이 낮아지는 등 저조한 흥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

현대차 '아이오닉6' 티저 이미지 공개 "바람 저항 최소화"...EV 콘셉트카 '프로페시'에서 영감

현대자동차가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차기 모델인 '아이오닉 6'의 티저 이미지를 21일 첫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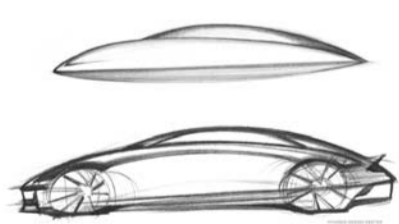
아이오닉 6는 2020년 3월 공개된 전기차 콘셉트카 '프로페시'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모델이다.

이날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는 현대차의 전동화 시대 새 디자인 유형인 '일렉트릭라이드 스트림라이너(Electrified Streamliner)'를 내세웠다.

스트림라이너는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한 부드러운 유선형 디자인을 의미하는 단어로 감성적이면서도 효율성을 강조하는 현대차의 새 디자인 유형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에 스트림라이너 형태를 구현해 심미적 아름다움과 기능적 효율성을 조합하도록 했으며 공간적인 여유도 강조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기반으로 다듬어진 전고 대비 긴 휠 베이스로 아



현대자동차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차기 모델인 '아이오닉 6'의 티저 이미지를 21일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자동차 제공

이오닉 6의 낮고 넓은 비율과 고객 중심의 실내를 구현하도록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유선형은 인류의 기술적 성취 덕분에 구현 가능해 형태이며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형상으로, 또 하나의 기술 진보의 산물이자 친환경으로 대표되는 전기차에 이를 접목시켰다"며 "아이오닉 6는 유선형을 한층 진화시킨 미래 재정의해 탄생시킨 모험적 곡선의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전동화 시대 자동차 디자인의 새 지평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